18대 국회 두달째 '허송'

법사·예결위 이견 원구성 난항

의장 중재 불구 진전 없어…민생 법안 뒷전

제18대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행정부 견제와 민생 대책 마련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상임위 대신 임시방편으로 특위를 구성, 당면한 쇠고기 문제와 민생 문제, 공기업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야 간 정치적 입장이 엇갈리면서 애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 구성 협상 진전없어=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나라당은 29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동원,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주선 및 원구성 조정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이후로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자고 이야기했지만 여태 한 번도 만나준 일이 없다"면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 어제 국회의장에게 의장의 권한으로 원구성 협상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의장 권한으로 원내대표단을 불러서 협상을 조정해보라고 했다"면서 "지금 원구성을 못하게 하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만나 "핵심은 법사위"라면서 "민주당은 예산결산상임위원회와 예결산 위원회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특히 "(원구성 협상은) 한나라당에 달려있다"면서도 홍 원내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 원내대표의 '원구성 조정권 요청'은 60년 헌정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장 중재도 어려워=한나라당의 중재 요청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48조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48조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총선 후 최초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18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 국회의장은 사실상 이러한 '선임 중재'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상임위원 선임에 앞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 조직을 고쳐야하기 때문이다.

가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 문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존폐여부등을 상임위원 선임에 앞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선결해야 한다.

때문에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는 장기 파행의 늪에 빠질 수 있다.

◇행정부 견제 기능 상실 우려=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행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야는 그동안 긴급현안질문, 특위 가동 등을 통해 이를 대신하고 있지만 이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능 유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임위 배정이 늦어지면서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준비도 전혀 못하고 있다. 부실 국정감사가 우려되는 것이다.

◇민생 문제 뒷전=각종 민생 현안과 관련된 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지만 원구성이 안 되면서 입법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28일 현재 국회에는 총 412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이 가운데 민생 문제와 직결된 법안은 47건에 달한다. 정부가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을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며 각종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당 지지율 반등" 희색

지지율 정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민주당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반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 22~23일 CBS-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도 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7%)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27.3%로, 이달 초 조사(22.3%)에 비해 5%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한나라당 지지율은 34.2%에서 32.6%로 소폭 하락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자체 조사에서도 당 지지율이 전당대회(7월6일) 직후의 20% 초반대에서 최근 20% 후반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이 큰 잡음 없이 안정되고 있는데다 서울시의회 뇌물 파동과 금강산 및 독도 사태 등 정국현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한 것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지율 반등은 여권의 국정운영 실패에 따른 반사작용이라는 측면이 더 큰 만큼 앞으로 대안 제시를 통해 소야(小野)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견제세력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가 당 지지율 상승 여부를 좌우할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탈한 전통적 지지층의 복원을 1차 목표로 정하고 정책 발굴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가 지난 27일부터 '국민공감-현장 속으로'라는 주제로 릴레이 민생 행보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차원에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개인택시조합 제6 LPG충전소를 방문, 한 개인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대다수 기사들은 LPG 가격 인상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의원 내달 초 민주당 복당 될 듯

무소속 박지원〈사진〉 의원은 29일 민주당 복당 문제와 관련, "정세균 대표나 원혜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로부터 복당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8월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일괄복당까지는 아니어도 선별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잘 되리라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복당의 걸림돌이 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는 당내 인사가 많은 것을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8월초 복당 가능성에 대해 "선별복당의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촛불집회의 배후로 사실상 민주당과 김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과 관련, "자기들은 자꾸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면서 변화된 10년은 모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 인수위 때부터 '없어진 7개월'을 국민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없어져 버린 7개월을 반성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없어질 5년이 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홍준표 한나라 원내대표 "왜 정권 교체했는지 답답…"

한나라당 홍준표〈사진〉 원내대표는 29일 "지금까지 국정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왜 정권을 교체했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심한 듯 촛불정국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내각의 보신주의, KBS 정연주 사장과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선 "촛불정국에서 각료들과 수석들은 비겁하게 대통령 뒤에 숨어버렸다"며 "국민에게 충성하고 이명박 정권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주체들이 제 한몸 보신을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지는 풍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없었고 촛불 정국에서는 경찰만 앞에 내세우고 모두 촛불 뒤로 숨어버렸다"면서 "왜 정권이 바뀌었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KBS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2~3번 발부했으면 다음엔 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하고, MBC 'PD수첩'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질책했다.

공공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개혁을 주도하지 않고 장관에게 떠맡긴다는 것은 말하자면 욕얻어먹을 짓 안하고 각부 장관이 책임지라는 것인 데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면 무정부 상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09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대비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 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파 강의!
곽내영교육학
여름방학 기본 문제풀이반 大특강
곽내영고시학원 http://www.naeyoung.com
대표전화 529-0090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사이(신안 사거리)
여름방학 특강! 현재 상담 접수중 개강 7월 4일

전공국어 최병해 마운용 교수팀 개강 7월 5일

강좌명 및 반구성			개강	특 징
국어교육학 최종 이론 완성반 담당 : 마운용 교수	오전	국어교육학 이론 정리	7월 5일(토) 9주 완성 (직강)	*국어교육학 기본 교재(상/중/하)로 진행 *중·고등국어/화/독/작 교과서로 진행 *2차 논술형 문제 유형 파악 중심 수업 *최종 마무리 subnote 활용
	오후	교과서 분석		
문학·국어학 최종 이론 완성반 담당 : 최병해 교수	7월	문학 이론 정리	7월 7일(월) 10주 완성 (영상)	*문학/국어학 기본 교재로 진행 *최종 마무리 subnote 활용 *2차 논술형 문제 유형 파악 중심 수업
	8월	국어학 이론 정리		
문제풀이 기본반	오전	1차 선다형 시험 대비	7월 6일(일) 9주 완성 (영상)	*영역별 기본 문제풀이집으로 진행 *강좌 구성 -7월 : 문학(4주) -8월 : 국어교육학(3주)/국어학(2주) *선다형 시험 문제 유형 파악과 훈련 실시 *논술형 시험 적응 훈련 실시
	오후	2차 논술형 시험 대비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좌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임미선 유아교육과정
1차 대비 영역별 객관식 문제풀이반
개강 6월 1차 18일, 2차 22일 강의시간: 09:30~17:30
[주차별 강의 내용] 현재 성황리 접수중
1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사상, 놀이
2주. 교육과정론과 총론
3주. 신체발달과 건강 생활
4주. 사회성발달 사회 생활 I
5주. 사회 생활 II
6주. 예술의 발달과 표현 생활
7주. 언어 발달과 언어 생활
8주. 인지 발달과 과학 교육
9주. 수학 교육
10주. 부모 교육, 교사론
11주. 교육과정 운영 I
12주. 교육과정 운영 II
※ 2차 논술형 주관식 문제반 추후 개설예정
언제 어디서나 만난다! 곽내영교육학 인터넷동영상
에듀뷰넷 www.eduview.net 02)816-1646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 · 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롬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시험 10月 26日 원서접수 8월18~8월27일 학원에서 접수대행
7月~8月 문제풀이특강 핵심이론 + 단원별 문제이해
9月~10月 총정리 및 실전문제특강 동형 모의고사 + 일일 단기특강
국비무료 고용보험 환급과정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제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1위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농성동 서구청 옆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확장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 소방 방재청은 인력이 부족한 맞교대 격무부서에 올해안에 2,228명의 소방인력을 충원한다 =
◉국가직 7·9급 공무원 합격강좌 ◉지방직
◉강좌직종: 행 교 세 관 법 검 철 교 보 보 복 군 토 건 전 / 정 행 무 세 원 찰 공 정 호 건 지 무 목 축 산
금년 중·하반기 시험
◉전남:제1회 공·경 9月27日 209명
◉경기:제2회 636 ◉전북119명 공채
◉서울:기술직 8.17. 658명 ◉선관위:9.27. 70명
개강 8월1일(주·야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합격수강 회원모집
◉6개월 (준)회원 80만원
◉1년 (정)회원 120만원
◉합격시까지 170만원
=귀하의 합격을 위해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

파격! 破格! 획기적인 여름방학 외국어 공부!
최소비용!으로 최고명강(最高名講)을!
토마토TOEIC 해커스TOEIC 맨투맨 영어
외국어 영어회화 TOEIC Speaking 중국어 일본어
수강증 1개로 2개 강좌 동시수강!
예술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T. 222-6253
변함없는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